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교양부분 선정

### 단숨에 읽는 사기

시마자키 스스무 지음 | 전향배 옮김  
392쪽 | 20,000원

#### 사기 속 3천 년 역사를 한 권에 담다

《사기》는 2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고전이다. 이 책은 신화시대에서 한나라 무제시대까지 《사기》를 해체하고 골라내고 재배치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탄생시켰다. 본기, 표, 서, 세가, 열전을 합해 시간 순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으며, 어디에서부터 읽든지 상관없이, 본문의 일부만 읽어도 흥미롭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분량은 줄이고 내용은 풍부하게, 즉 《사기》 입문서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갖추어 독자로 하여금 거울로 삼을 만한 인생의 교훈을 전해준다.



### 시대를 움직인 한마디

시마자키 스스무 지음 | 전향배 옮김  
352쪽 | 15,000원

#### 150개의 명대사로 즐기는 6천 년의 역사 드라마

역사 관련 전문가가 시마자키 스스무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세계적 명언들을 모아, 그 출처를 따라가며 흥미롭고 지적인 세계 여행을 선사한다. 책을 펼치는 순간, 독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중세의 문명을 거쳐 21세기의 문을 연 9.11테러까지 순식간에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명언을 읽으며 세계사를 산책하다 보면 한마디 말이 어떻게 시대를 움직였는지 깊이 음미할 수 있다.

쉽게 읽히되 잔잔한 인문학적 감동을 통사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 책은 세계사를 여행하는 유쾌한 방법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값 15,000원



창해

###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함께 600년을 버텨온 한양도성!

## 어느 별 좋은 날 서울의 성곽길을 한바퀴 돌아보자!!

조선 심장부의 울타리 노릇을 한 한양성곽.

조선의 태동부터 근현대사의 역사적 장면 하나하나를 담아낸 후,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롯이 자리매김하다



북악에서 인왕으로, 다시 남산에서 낙산으로!

이 책은 총둘레 18.6킬로미터에 이르는 한양도성길을 오직 두 발로 걸으면서 둘러본 역사기행서다. 한양과 서울, 아니, 조선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600년이란 기억 속에 담아둔 한양도성…… 위급시 성곽길을 내달으며 봉수대까지 전달한 청년을 기억하고, 인왕산 치마바위에서 중종과 단경왕후의 서로를 그리는 모습도 기억할 것이다. 남대문 주변성곽을 헐어버리고 입성한 일본 왕세자의 무도함에 치를 떨었을 것이며, 아들을 낳기 위해 돌을 문지르며 기도하던 부침바위 아낙네들도 떠올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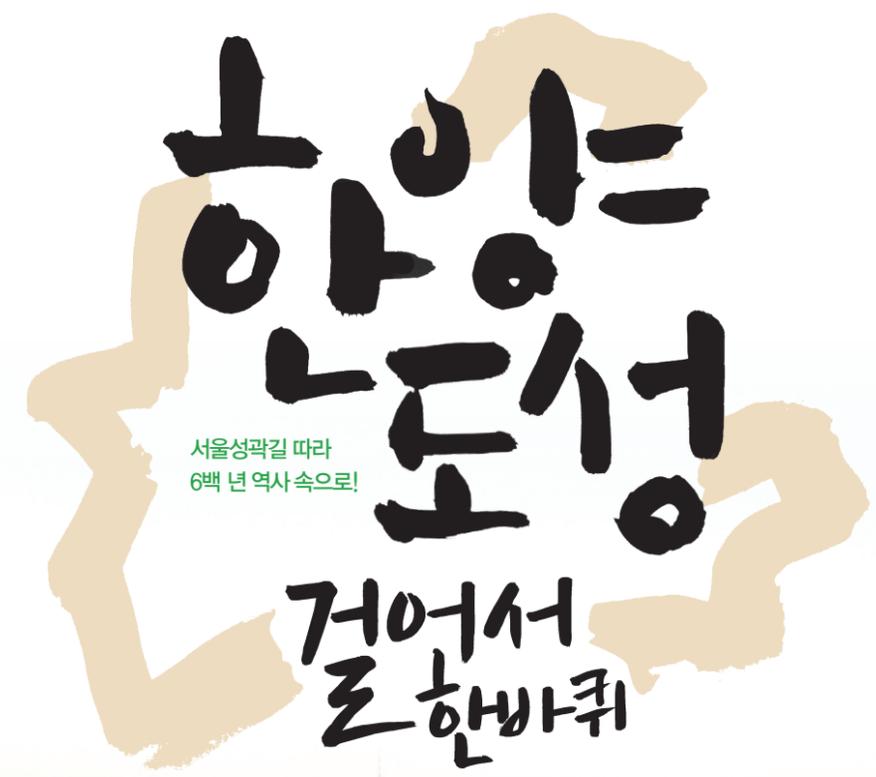
이제 한양도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곽'이라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거듭나, 과거를 체험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갖추었다. 잠시 책상을 밀치고 두 발로 한양도성길을 걷다보면 '역사가 소곤소곤 말을 걸어올지도 모른다.

한양도성 걸어서 한바퀴 — 유영호 지음

서울성곽길 따라 6백 년 역사 속으로!

— 유영호 지음

창해



세계 최장 · 최대 규모의 도성방어 성곽, 한양도성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예정!!

창해

한양도성 걸어서 한바퀴 — 유영호 지음

### 유영호

오십을 목전에 둔 어느 날, 그는 운동화 끈을 고쳐 매고 한양도성길을 찾아나섰다.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본연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저자 또한 자기가 밟 딛고 있는 땅, 무심한 듯 살아온 그 터전의 근본과 과거를 돌아보고 싶은 열망을 느꼈기 때문이다. 불현듯 찾아온 강한 호기심은 결국 그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과거를 꼼꼼히 돌아보게 만들었다. 때때로 무너지거나 흔적만 남은 성곽길까지 오로지 두 다리만 이용하여 걸었을 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는 귀한 체험을 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체는 다름 아닌 '역사'였다. 묵묵히, 그러나 웅장하게 펼쳐진 성곽길, 그 사이를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후세가 세워둔 역사의 표지판 하나하나를 온몸으로 보고 느끼며, 저자는 '역사공부'가 아닌 그야말로 '역사체험'을 할 수 있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IT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표로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를 향한 근본적인 관심을 이기지 못해 뒤늦게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국내에서 전무하다시피 한 북한영화 관련도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아픈 과거마저 똑바로 응시하여 역사의 줄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으며, 오늘날 '남북의 하나됨'이란 주제와 씨름하고 있다. 저서로는 『하나를 위하여』, 『북한영화, 그리고 거짓말』, 『21세기 민족주의』(공저) 등이 있다.

표지사진\_서울시청 한양도성도감 / 표지디자인\_황미선